

“강인구는 드라마라 가능한 캐릭터... 내년 에미상 받았으면”

넷플릭스 '수리남'서 국정원 작전 투입된 흥어 사업가 역 “한국적 설정들, 외국 시청자들에 독특한 관람 포인트 될 것”

이름도 낯선 남미 국가 수리남에서 목사 행세를 하는 한국인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한 국정원 작전에 어찌다 보니 투입된 민간인 사업가 강인구(하정우 분)는 평범하면서도 비현실적인 인물이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수리남'에서 강인구를 연기한 하정우(사진)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은 비현실적이지만 작품의 긴장감을 밀고 당기는 캐릭터라고 했다.

강인구는 자식들 학업 성적과 집 전세금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 평범한 아버지지만, 마약상 전요환(황정민)을 눈앞에서 태연하게 속이고, 잘 훈련된 조직원들을 학창 시절 배웠다는 유도 기술로 넘겨버린다.

흥어를 한국으로 유통하기 위해 수리남에 건너간 민간인이 전문 요원 못지않은 발군의 역량을 쏟아내니 현실성과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정우는 “나 역시도 연기하면서 강인구의 능력에 대해 엄청난 궁금증에 부딪혔다”며 “일반 수산업자가 유도만 배웠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내는 게 궁금하긴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영화적으로 허용된 캐릭터라고 생각하다”며 “강인구 캐릭터(의 설득력)를 좀 희생하

더라도 작품이 더 리듬감 있게 흘러가는 걸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는 전요환의 핏에 빠져 억울하게 남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자식들을 위해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국정원 작전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류한다. 한국의 가족들과 통화하며 애써 관망은 적히는 모습에 가슴이 찡하다는 시청자들 반응도 있다.

그는 “강인구가 먼 타지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아내와 통화하며 ‘절대 집 전세금 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자식들의 숙제를 걱정하는 모습이 잔잔하게 쌓이면서 공감을 산 것 같다”고 했다.

“수리남”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남미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했던 범죄자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가공의 인물이나 사건 등 극적인 요소를 추가했다.

하정우는 마약을 소재로 한 해외 유명 시리즈에서도 본 적 없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을 이 작품의 매력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비 종교 교주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든 사기꾼 전요환 등을 가리키며 “이 촘스키론 한국 사람들이 중남미까지 가서 마약 사업을 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는 설정이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인이 일종의 ‘가족 사업’인 중남미 마약 시장에서 대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한인 목사, 흥어 사업과 같은 한국적인 설정들이 외국 시청자들에게도 독특한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뷰 당일 열린 에미상 시상식을 언급하며 “내년엔 ‘수리남’으로 상을 받으면 어떨까 싶다”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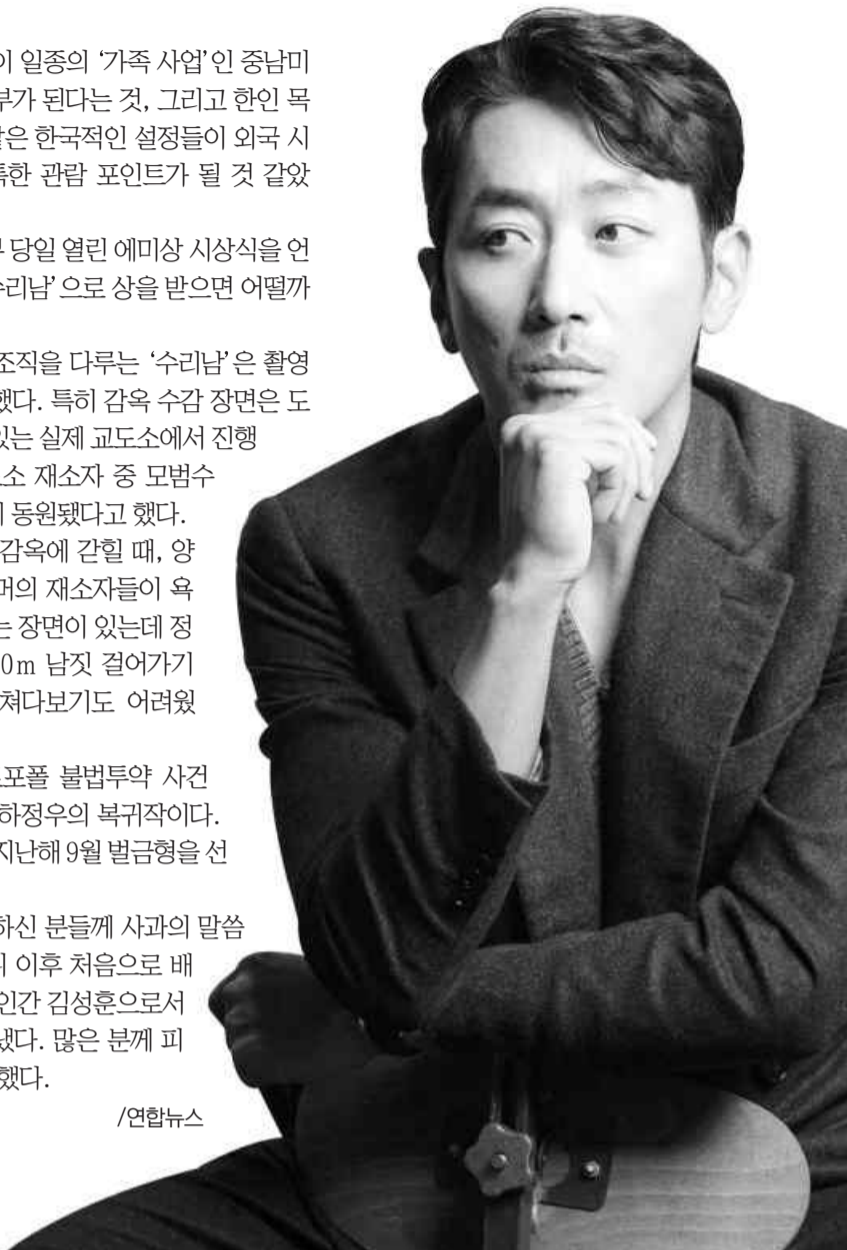
하정우는 마약 조직을 다루는 ‘수리남’은 촬영부터 남달랐다고 했다. 특히 감옥 수감 장면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실제 교도소에서 진행됐는데, 실제 교도소 재소자 중 모범수 200여 명이 촬영에 동원됐다고 했다.

그는 “강인구가 감옥에 갇힐 때, 양쪽에서 철조망 너머의 재소자들이 욕하며 환호를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살벌했다”며 “10m 남짓 걸어가기가 어렵고, 옆을 쳐다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수리남”은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으로 아픔을 겪은 하정우의 복귀작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지난해 9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정우는 “실망하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배우 하정우를 떠나 인간 김성훈으로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많은 분께 피해를 드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BC 새 드라마 ‘팬레터를 ...’ 최수영·윤박 주연... 11월 방송



최수영



윤박

배우 최수영과 윤박이 MBC 새 로맨틱코미디 드라마 ‘팬레터를 보내주세요’에서 호흡을 맞춘다. MBC는 11월 방송될 예정인 새 드라마 ‘팬레터를 보내주세요’의 캐스팅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팬레터를 보내주세요’는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한 여배우와 가짜 팬레터 담당으로 딸의 팬심을 지켜야만 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다. 최수영이 팬레터 때문에 연예계 인생 중 최대 위기를 맞은 최정상의 스타 한강희, 윤박이 열병을 앓고 있는 딸을 홀로 키우는 미혼부 방정석으로 분한다.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우수작품상을 받은 작품으로 ‘지금부터 쇼타임’을 공동 연출한 정상희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연합뉴스

아이즈원 출신 이채연 솔로 데뷔

결그룹 아이즈원 출신 이채연이 다음달 첫 음반을 내고 솔로 데뷔한다고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가 15일 밝혔다.



이채연

이채연은 2018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에서 뛰어난 춤 실력으로 주목받으며 이를 통해 결성된 아이즈원에서 메인 댄서로 활약했다.

그는 춤 실력과 더불어 탄탄한 가창력으로도 눈길을 끌었고, 그룹 해체 이후에는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도 출연해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로써 아이즈원 멤버 12명 가운데 배우로 전향한 김민주를 제외한 11명 전원이 솔로 혹은 그룹으로 가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은비·강혜원·최예나·이채연·조유리는 솔로 음반을 냈거나 준비 중이고, 장원영·안유진과 사쿠라·김채원은 각각 아이브와 르세라핌으로 재데뷔를 치렀다. 혼다 히토미와 아부키 나코는 일본으로 돌아가 각각 AKB48과 HKT48에서 핵심 멤버로 활약했다. /연합뉴스

김광규·곽윤기·김태균·이장준 “다시 공부...배움에는 때가 없다”

KBS조이 새 예능 ‘내일은 천재’서 학구열 의지

배우 김광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곽윤기, 야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김태균,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 등 4인방이 천재로 발돋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KBS조이 새 예능 ‘내일은 천재’의 콘셉트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이 국어·영어·수학 등 다양한 분야 ‘일타강사’의 수업을 듣고 다시 공부에 도전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광규는 15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 모두 자기 분야에서는 천재 이상이지만, 공부 앞에서는 작아진다”며 “저희가 천재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진은 학창 시절 공부를 등한시했다며 ‘내일은 천재’를 통해 학구열을 불태워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광규는 “배움에는 때가 없다고 하니 뒤늦게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태균은 “그동안 운동만 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적었는데 강사님 수업에 집중하니 (머리가)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며 “두 딸이 학교에서 배운 걸 질문했을 때 간단명료하게 답해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곽윤기도 “어릴 때 스케이트 말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일이 없었다”며 “한 번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공부에 흥미를 갖는 게 목표”라고 했다.

아이들 연습 기간이 길어 학창 시절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장준은 “16살 때부터 공부와는 담을 쌓은 상태라 (녹화가) 힘들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렇지만 수업 전과 수업을 마친 후에 자신감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성장하는 게 관련 포인트”라고 귀띔했다.

이들의 공부를 도울 ‘브레인 가이드’로는 방송



KBS조이 ‘내일은 천재’ 출연진

인 전현무가 나선다. 전현무는 “출연진 여러분이 공부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15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